총무원장 선출제도 개선 '블랙아웃'

중앙종회 특위 동력 잃어… 회의 소집도 無

3월 14일 6차 회의 끝으로
특위 공식회의 열리지 않아
5월엔 성원미달로 간담회만
공청회 · 여론수렴도 미지수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계종 현행 선거법으로 인해 불거지는 폐단을 막고자 수년간 이어져온 총무원장 선출제도 개선 노력이 사실상 '블랙아웃(대정전)' 상태다. 제16대 중앙종회 임기가 몇 달 남지 않은 데다 관련 특위 또한 동력을 잃어 회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계종 중앙종회 총무원장선출제도개선 특별위원회(위원장 초격)는 지난 5월 1일 회의 성원 미달에 따른 간담회 이후 한 달이 넘도록 회의 일정을 정하지 못했다. 이전 간담회에는 15명의 위원 중 4명만 참석해 이렇다 할 논의조차 할 수 없었으며, 결국 3월 14일 제6차 회의를 끝으로 현재까지 공식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특위 간사인 일감 스님이 최근 총무원 기획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특위 활동은 한층 더 움츠러들었다. 일감 스님은 제6차 회의서 여론조사를 거친 '추선제'를 제안하고, 외부 전문위원들을 섭외하는 등 특위 전반에 걸쳐 활동해왔다.

특위 위원장 초격 스님은 본지 전화통화에서 "(위원들과) 서로 일정을 조정하고 있는데 잘 안 맞는다. 첫 회의 때부터 6월 임시회를 원포인트 종회로 생각하고 선출제도 개선을 논의해왔지만 17대 중앙종회 선거를 앞두고 관심도가 많이 옮겨간 것 같다"며 "하는 데까지는 맡은 바 계속 노력해보려 한다.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은 당연한 것이기에 이번 종회서 안 된다면 다음 종회서라도 다뤄야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개정 논의는 활발했으나…

2014년 11월 제16대 중앙종회 구성 이후 총무원장 선출제도와 관련된 논의는 제법 활발하게 이어졌다. 종책모임 삼화도량은 주요 종책과제로 총무원장 직선제를 내세웠으며, '총무원장 직선제 실현 사부대중 연대회의'는 2015년 3월 기자회견과 함께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그해 8월 법등 스님이 추첨제를 골자로 한 '염화미소법'을 제안하면서 총무원장 선출제도에 대한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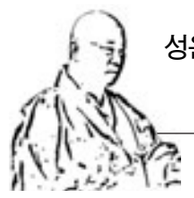
이에 따라 중앙종회가 9월 개원한 203회 임시회서 염화미소법을 다룰 '총무원장 선출제도 혁신 특위'를 구성했고, 이후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에서 직선제를 희망하는 종도들의 여론이 확인되자 2016년 6월 206회 임시회서 '총무원장 직선 선출제 특위'까지 구성했다. 하지만 두 특위에서 상정한 각각의 종헌개정안은 거듭 이월됐다. 결국 중앙종회는 2017년 3월 208회 임시회서 두 특위를 해체하고, '총무원장 선출제도개선 특위'를 꾸려 통합적인 관점서 다시 논의를 이어가도록 했다.

신규 특위는 회의를 통해 타종단 및 외국불교계 수장 선출방법 등을 검토하고, 추대와 선출이 혼합된 방식인 '추선제'도 논의했으나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했다. 위원들과 뜻을 모았던 공청회 개최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와 관련해 기획실장 일감 스님은 "총무원장 선출제도 논의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다. 앞으로도 꾸준히 풀어 나가야할 화두이기도 하다"며 "무엇보다도 종회의원들의 의지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견해를 피력했다.

한편 지지부진한 특위 활동에 실망감을 드러낸 위원도 있었다. 한 특위 위원스님은 "총무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여러 부작용과 분열이 생겨 지혜를 모으기 위해 논의를 시작했지만 현재는 진행되는 게 없다. 그저 안타깝다"면서 "과연 이 문제가 17대 종회서 해결될 수 있을지도 크게 기대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다른 위원스님은 "현재로써는 특별히 회의와 관련해 연락 받은 게 없다"며 "선거제도가 보완되지 않으면 그간 겪어온 갈등은 해소되지 않는다. 불자들이 감동할 수 있도록 부처님, 그리고 승가 다운 모습을 만들어가는 데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성운 스님의
보리수 아래서

12處 '세상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

눈 · 귀 · 코 · 혀 · 몸 · 마음(眼耳鼻舌身意)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섯 개의 인식기관(六根)의 작용이 '세상의 생겨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세상과 육근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봅시다.

*어느 날 생문 바라문이 부처님께 찾아와서 질문했습니다.

"일체(一切)란 무엇입니까?"

당시 인도에서 '일체'라는 말은 '모든 것'을 의미하는 우주 전체를 가리키는 대명사였습니다. 우리가 살고있는 세계 또는 세간과 같은 개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바라문의 질문에



제목 · 심청정국토청정 그림 · 조향숙

6근이 6경 인식하는 연기적 관계가 '세상' 인간중심 존재론적 세계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일체란 12처(處)에 포섭되는 것이다. 눈과 색(色), 귀와 소리, 코와 냄새, 혀와 맛, 몸과 촉감, 마음과 법을 일체라고 한다. 만약 이 12처를 떠나 다른 일체를 시설하겠다면 그것은 말일뿐 물어봐도 모르고 의혹만 더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식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잡아함 권 13〉

부처님은 우주의 삼라만상은 12처에 거뜬히 포섭된다면서 12가지 이외의 것, 즉 인간에 의해 인식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셨습니다.

*12처설은 그 12가지 속에 모든 것이 '들어온다'는 뜻을 취하여 처(處)라고 부르고, 이 교설을 12처설이라고 했습니다. 처는 마음과 마음작용을 생장(生長)시키는 문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12처는 인식기관인 6근(六根)과 인식대상인 6경(六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눈 · 귀 · 코 · 혀 · 몸의 5근과 이를 통솔하는 마음(意根)을 육근이라고 합니다. 육근이 인식하는 대상이 육경입니다. 즉 눈으로 보는 색 · 형태(色境), 귀로 듣는 소리(聲境), 코로 맡는 냄새(香境), 혀로 느끼는 맛(味境), 몸으로 느끼는 촉감(觸境), 마음으로 아는 생각(法境)입니다. 6근(六內處)과 6경(六外處)은 상응하는 대상을 만나 서로 의존적일 때 존재의 근거가 생기는 연기적 관계입니다.

*12처설에서 우리는 인간을 중심으로 한 불교의 존재론적 세계관을 볼 수 있습니다. 인식주체가 되고 있는 6근은 그대로 인간존재를 나타내고, 인식객체가 되고 있는 6경은 인간의 자연환경에 해당됩니다. 우주의 모든 존재는 12처에서 비롯됩니다. 12처설은 불교의 기본교리인 연기설의 기초로서 6식(識)이 일어나 18계(界)를 이루는 기본바탕입니다.

육근 참회 수행이 있습니다. 6근으로 지은 죄업을 참회하면서 아상을 녹이면 육근이 청정해지는 닦음입니다. 안이비설신의가 깨끗할 때 그 대상인 6경을 있는 그대로 인식합니다.(如實知見)

세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12처에 있습니다. 12처가 세상입니다. 12처가 밝으면 세상이 밝습니다. 이러한 연기법을 보고 일체의 존재에서 무상과 무아를 보면 집착에서 벗어나 이고득락의 길이 보입니다.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 그리고 마음을 잘 챙깁시다. 6근 청정은 세상 청정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불법에서 가장 으뜸인 연기(緣起)의 가르침입니다.

〈삼천사 회주 · 동국대 석좌교수〉

조계종 직할교구 탈북대학생 장학금

5명에게 각 100만원씩

조계종 직할교구가 처음으로 탈북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6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열린 직할교구 청년장학금 전달식에서 탈북 대학생들을 격려했다.

설정 스님은 "언젠가는 남북한이 하나가 될 것이고, 여기 있는 학생들은 그 시간을 더욱 많이 누리게 될 것"이라며 "통일이 되면 남한에서 배운 지식으로 한반도 평화와 발전을 위해 주역으로 활동하게 된다. 힘든 일이 있더라도 꿈을 갖고 정진하면 이뤄지니 학업에 정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직할교구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대학 불교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탈북 대학생 중 '통일바라밀숲' 추천을 통해 동국대와 홍익대 재학생 5명에게 각각 100만원씩 전달됐다.

한편, 직할교구의 이번 탈북 대학생 장학금 지원은 최초로 직할교구는 향후 청년불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성추행 의혹 시기, 법장 스님 장례 맡아"

현응 스님, MBC PD수첩 성추행 의혹 전면 반박

MBC PD수첩이 5월 1일 방영한 '큰스님께 묻습니다'를 통해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사진〉에 대한 성추행 의혹을 보도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응 스님이 방송내용을 전면 반박했다.



현응 스님은 6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PD수첩이 제기한 성추행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현응 스님에 따르면 의혹 제기자는 올 초 인터넷 익명사이트에서 '2005년 9월 중순' '그날이 수요일' '저녁공양 후 7시에 오라'는 등 구체적인 상황묘사를 글로 남겼다. 이에 스님은 2005년 9월 중순인 14일이 前총무원장 법장 스님 장례기간이었음을 밝혔다. 현응 스님은 "법장 스님 장례 집행위원장을 맡아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서울에 있었다"며 본인이 참석한 내용을 담은 언론 보도를 자료로 첨부했다.

현응 스님은 이어 "의혹 제기자는 사건 당일 오후 7시 이후 해인사에서 고속도로를 이용해 대구 반야월 이마트로 갔다고 했다"며 "동대구IC 또는 경산IC 톨게이트 사진을 수사기관에서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장례위원장 맡아 서울에 체류" 수사기관에 톨게이트 확인 요청

"9월 14일뿐만 아니라 전 주인 7일 또는 다음 주인 21일경에 대해서도 톨게이트 확인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의혹 제기자가 자신의 주장을 바꾼다면 그 다음에 검토해볼 일"이라고 답했다.

이어 두 번째 의혹 제기자에 대해서는 "방송을 통해 처음 인지했다. 의혹 제기자는 사실 입증을 위해 어느 해, 언제, 어디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인사 카드내역 악의적 편집"

현응 스님은 이외에도 해인사 카드사용 내역과 관련해 "PD수첩이 유흥주점과 숙소이용을 연계된 것처럼 왜곡 편집했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방송에서 유흥주점 및 숙박업소 사용 총 161건, 8200만원이라고 했지만 부풀려 왜곡시킨 것이다. 심지어 호텔 커피숍과 식당까지 숙소사용 횟수에 포함됐다"면서 "3년 3개월치 법인카드 내역에 나타난 모든 숙소사용은 총 56건이다. 다수가 해인사 외빈과 각종 출장에 대한 숙소사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현응 스님이 기자에게 공개한 카드내역에 따르면 유흥주점과 숙박시설 카드 결제일은 대다수 달랐다. 스님은 "3년 넘는 기간 동안 유흥주점 이용내역이 몇 건 있지만 직원들 회식과 관련되거나 외부인사 접대가 전부다. 해인사 스님들과는 전혀 무관하다"면서 "주점 이용일에 사용한 몇 건의 숙소도 외빈 접대 후 직원 객실이었다. PD수첩이 화면에 각각 다른 날짜의 결제내역을 연결해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현응 스님은 PD수첩 방송과 관련해 6월 1일자로 형사고소를 마쳤다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BTN 불교TV가 만든
불교계 유일의 불교전문 장례!!! 불 국 토 상 조
불국토상조는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위하여 진심을 다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불국토상조가 불교문화를 이어갑니다. 가입상담 1577-7675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이 설립한 불국토상조

"불국토상조만의 불교전문 장례서비스 특징"

스님의 시다림 봉사
입관 및 성복제를 하는 동안 스님이 여법한 염불 집전을 해드립니다

장엄한 제단장식
부처님의 무한한 공덕을 나타내는 번(幡)장식을 통해 제단의 불교식 장엄함을 구현합니다

불경수의/ 지장보살상 위패
영가의 극락왕생을 위하여 지장경(금박)이 새겨진 불경수의와 지장보살상 위패를 제공합니다



대리점주 (장례포교사)를 모십니다. 상담문의 02-525-3370
부처님오신날 봉축할인 4.23 – 5. 22(중복할인 불가)

▲ 종로구 창신동 안양암 극락왕생도 <서울시 유형문화재 188호>

BTN 불교TV 불국토상조
불국토상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준수하여 회원의 소중한 상조납입금을 법률에 따라 안전하게 예치하고 있습니다. 상조관련 중요정보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btnlife.co.kr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97 4층 / 대표이사 구본일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서울-2011-제 68호